

2) 낙안향교- 낙안면 교촌리 222번지 소재,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12호

낙안향교의 창건연대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통국여지승람』에 고을 북쪽 1리에 향교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뒤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 성동쪽 3리의 용암등에 이진되어 내려오던 것을 1658년(효종 9) 3월, 향유 안지윤(安止尹)·박사겸(朴思兼)·한준급(韓俊及)·이순형(李純馨)·선익(宣·) 등이 현재의 위치인 성동2리에 옮겨 세웠다.¹⁾ 1666년(현종 7)에 감역 선이흥(宣以興)과 김시성(金是城) 등이 도유사·별유사가 되어 명륜당을 건립한 후 1795년(정조 19)에 외삼문을, 1802년에는 군수 권우인(權友仁)이 명륜당을 증수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다른 고을의 향교와 마찬가지로 낙안향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실해지자, 1777년에 이르러 군수 신치권이 향교 가까운 곳에 양사재를 건립하여 향교의 교학기능을 대행케 하였다. 그후 1907년 본 향교는 큰 수난을 당하게 된다. 지방관제의 변경에 따라 낙안군이 폐군되면서 아울러 군내의 관공서들이 폐철되기에 이르자 향교 역시 훼손의 위기를 맞는다. 1909년 11월, 상부의 명에 따라 마침내 문묘의 위패를 매장(埋安)함으로써 사실상 낙안향교는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1916년 향유 안규휴·안진환·정한근 등의 노력으로 문묘복설운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많은 유림들이 참여하여 의연금을 각출하는 한편 위패를 새로 만들어 5성(聖)의 위패를 정전(正殿)에 다시 봉안하였다.

그후 5년 뒤인 1921년에는 동서 양무(兩廡)가 복설되어 18선정(先正)의 위패까지 다시 봉안할 수 있었으며, 해방 후 1949년부터는 10철(哲) 6현(賢)의 위패 봉안까지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²⁾

1) 『낙안읍지』, 『樂安文廟重奉實紀』, 1901.

2) 조원래, 『낙안향교』, 『전남의 향교』, 전라남도, 1987, 189쪽.

